

『산동면 · 양포동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청원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청 원 자 : 산동면 · 양포동 행정구역 경계조정 대책위원회
대표 최형우 외 1,244인

2. 소개의원 : 구미시의회 의원 김영호

3. 청원사유(내용)

- 산동면은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봉산2리와 신당1·2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용되어 용지지원시설부지 외에는 약99%가 공장 지역에 위치하고, 나머지 상업, 주거지역은 모두 양포동 행정구역에 지정되어 있음 (산동면 16개리→15개리 조정 예정)
- 산동면은 산업단지 제4단지와 배후단지 조성을 위해 환경자원화 시설, 지정폐기물처리장, 하수종말 처리장 등 3D시설이 준공 및 공사중이며, 행정구역 조정마저도 주민편의를 구실삼아 구미시가 일방적으로 산동과 양포의 3만 주민이 협의된 것처럼 (안)을 배포하는 것은 우리면을 우습게 보는 처사라 사료됨
- 봉산1리와 임천리 2개리가 경제자유구역에 편입 예정이고, 4공단 배후도시로 신당1·2리, 인덕2리가 편입예정이며, 국가산업단지 제5단지가 산동면 일부리에 지정고시 된다는 유언비어가 난무함. 구미시에서는 주민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e-편한세상 365명의 의견으로 일방적인 선을 긋는 것은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사례로서 한심스러울 뿐임

- 따라서 산동면 주민의 종합적인 의견은 해마루 공원 8차선 도로를 기점으로 우미린 아파트, 신당1리(원당골)고개마루, 양포 금전동 지역, 외국인 전용단지 한천을 중심으로 양포동으로 하고, e-편한세상, 해마루 공원쪽은 산동면으로 경계조정을 요구하며,
만약 상기 조정안이 어려우면 산동면과 양포동 경계를 그대로 적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함

4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73조
- 「구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」

5. 검토의견

- 본 청원은 산동면과 양포동의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반대하는 산동면민의 청원 사안으로서
 - 현재 구미시에서는 입주예정인 e-편한세상과 우미린 아파트를 양포동으로 편입코자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추진중이며,
 - 이에 반대하는 산동면민의 의견으로는 첫째, 해마루 공원 8차선 도로를 기점으로 우미린 아파트, 신당1리(원당골) 고개마루, 양포 금전동 지역, 외국인 전용단지 한천을 중심으로 양포동으로, e-편한세상, 해마루 공원쪽은 산동면으로 경계조정을 요구하며, 둘째, 첫째(안)이 어려우면 현재의 산동면과 양포동 경계를 그대로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

○ 참고사항으로

- 구미국가산업 제4단지 편입지역은
5개 법정 리·동으로서 산동면의 신당1리, 봉산리와 양포동의
옥계·구포·금전동이며,
- 경계조정 대상 아파트는
2008년 10월 입주예정인 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17-1-2블럭 일대
옥계 e-편한세상 아파트(793세대)가 산동면 봉산리와 양포동
(옥계동)으로 나뉘어져 있고,
2010년 4월 입주예정인 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18-1-2블럭 일
대 옥계 우미린 아파트(1,029세대)가 산동면 신당1리와 양포동
(옥계동)으로 나뉘어져 있음

○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위한 추진 사항으로서는

- '06.11.20 회의결과 양 지역 주민과의 조정이 어려워 아파트입주
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키로 하였고, 학교
배정문제는 옥계 동부초등학교와 옥계 중학교를 신설하는 것으로
교육청과 의견 교환하였음
- '07.2.2 e-편한세상 793세대중 분양받은 644세대를 대상으로
설문조사한 결과 설문 참여자 365명중 면지역 희망자 16명(4.4%),
동지역 희망자 349명(95.6%)의 결과로 도출되었고,
- '07.3.14 행정구역 관련 정책조정 회의시 임야는 산동면, 아파트
2개 단지는 양포동으로 조장하는 안을 결정하였으며,
- '08.7.23 양포동사무소에서 행정구역 개편안을 주제로 양측 대표자
회의를 개최한 바 있음

-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의 2009년 준공에 대비하고 또한 입주 예정인 2개 아파트 입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등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추진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쌍방간의 의견 상충으로 행정 불신이 팽배한 실정인 바,
- 행정구역은 지방행정의 골격을 형성하는 기본제도로써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아래 역사적 전통성, 주민편익, 행·재정적 효과 등을 고려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어야 하겠으며,
- 양측 주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적절한 갈등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등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

- 산동면 · 양포동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청원 -
의 건 서(안)

1. 처리기관 : 구미시장

2. 산동면 · 양포동의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의 2009년 준공에 대비하고 또한 향후 입주 예정인 e-편한세상 및 우미린 아파트 1,822세대 입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등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

행정구역은 지방행정의 골격을 형성하는 기본으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아래 역사적 전통성, 주민편익, 행 · 재정적 효과 등을 고려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임

그러나,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안이하게 대처함으로써 지역 주민간 갈등과 대립양상이 점차 행정 불신으로 이어지는 등 갈등해소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므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하여 본 청원을 구미시에 이송 처리할 것을 의결하였다.

다 음

-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생활권, 학군, 지역개발, 주민편익 등 일정기준을 참고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주민이 원하는 방향의 조정이 요구되므로
- 제반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요구한다.

2008. 8.

구미시의회 의원 일동